

광양시, 확대간부회의 열고 주요 당면 현안업무 논의

올해 상반기 업무 꼼꼼한 마무리 당부

광양시는 지난 3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경호 부시장의 주재로 6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추진해야 할 당면 현안업무를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경호 부시장은 일방적인 지시 형식의 회의보다 토론문화가 활성화되도록 회의 추진 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2022년 정부합동평가 전

라남도 내 종합 1위 달성', '전라남도 지방세정평가 최우수상 수상',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사업 우수지자체 선정', '숲 치유 프로그램 콘테스트 대상' 등 여러 성과를 위해 고생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였다.

또한 매실 수확철을 맞아 바쁜 시기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각 부서에서 농촌일손돕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길어지는 가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뭄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6월을 강조하며, 새 정부 기조에 맞는 시책·정책 발굴과 민선 8기 당선인의 공약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사업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선 7기 마지막 달이자 한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에 연초에 계획한 업무의 추진상황을 세심히 점검하고, 각종 평가·시상사업에 미리

대비해 좋은 결과를 위해 노력해 달라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행정업무 S/W 엣지브라우저 전환추진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건립 및 운영 ▲제5차 문화도시(예비) 공모 추진 ▲성황 다목적체육관 개관 및 운영 준비 ▲전라남도 건축경관심의 개최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 이달의 중점 업무가 보고대상에 올랐다.

/오승택 기자

구례군,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구례군은 여름철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져 세균 증식이 활발해지고,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 섭취로 인해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위장관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비브리오 패혈증 등이 있다.

특히 비브리오 패혈증은 주로 어패류 섭취나 피부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으로 감염된다. 만성 간질환자, 당뇨병, 알코올중독자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면역저하자 중심으로 발생하는 3급 감염병으로 치사율이 30% 이상으로 높아 감염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집단급식과 단체생활의 증가로 학교와 요양병원 등 시설에서의 집단 발생이 증가할 수 있어 집단시설은 더욱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예방수칙으로는 ▲사용한 도마나 칼 등은 반드시 소독하고 흐르는 수돗물에 씻기 ▲설사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는 경우 조리하지 않기 ▲피부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 삼가기 등이 있다.



여수시립도서관이 6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맞춤형 도서관 투어 프로그램 '도서관으로의 초대'를 운영한다. '도서관으로의 초대'는 주제별로 특화된 시립도서관 4개관(이순신, 현암, 환경, 율촌)을 견학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립도서관, 맞춤형 투어 프로그램 운영

여수시립도서관이 6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맞춤형 도서관 투어 프로그램 '도서관으로의 초대'를 운영한다.

'도서관으로의 초대'는 주제별로 특화된 시립도서관 4개관(이순신, 현암, 환경, 율촌)을 견학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순신, 현암, 환경도서관을 견학하는 A코스와 이순신, 율촌도서관

을 견학하는 B코스로 나뉜다.

각각의 코스는 다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코스와 중학생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코스로 나눠 진행된다.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10회 운영되며, 투어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다.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기관 및 단체(1회 25명 이내)는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시립도서관 담당자 이메일(dnwd8820@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신청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립도서관 홈페이지(yslib.yeosu.go.kr)를 참고하거나, 이순신 도서관(061-659-28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문석 기자

곡성군 농특산물, 장미축제장서 큰 호응

곡성군이 제12회 곡성세계장미축제에서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해 2억 6천만 원의 매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6일까지 17일간 곡성군은 3년 만에 장미축제를 개최했다. 축제장인 기차마을 내에서는 생산 농가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이 운영됐다. 지역 농가(단체) 18개 소가 참여했으며 총 131개의 다양한 농특산물과 가공품들을 선보였다.

방문객들은 첫 출하를 시작한 명품 곡성멜론에서부터 삼기 햇흑찰, 옥수수 등 제철 농산물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곡성군 대표 농산물을 농가들이 직접 가공한 흑찰옥수수빵, 토란 부각, 토란 파이, 백세미컵 누룽지, 토란 앙금떡, 멜론 앙금떡 등도 행사 기간 내내 매진 행렬을 기록했다.

그 결과 전체 참여 농가 합산 약 2억 6천만 원의 높은 판매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일규 기자

순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2차 접수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순천시는 문화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 여성 농어업인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1인당 연 20만원의 행복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2차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초 1차 접수를 통해 총 6천 842명의 대상을 선정했으나, 더 많은 여성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놓친 대상자들을 위해 추가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남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75세 이하(1947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 출생)의 여성 농어업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여성농어업인은 오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격 검증을 통해 최종 인원을 확정해 올해 하반기 중 행복바우처 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올해 초에 신청하지 못한 여성농어업인이 있다면 꼭 기간 내에 신청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승택 기자

소통하는 대한민국 그 중심에 1등 보성군

